

‘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’ 대전·대구에서 운영

-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대전시·대구시 지역으로 확대 운영
- 심리 상담, 법률 상담 및 피해지원 프로그램까지 종합서비스 제공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온 ‘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서비스’를 7월 3일부터 대전시, 대구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.

○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「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」(4.27)의 일환으로 전세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·심리·금융·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해왔으며, 인천 미추홀구(4.21~5.31)를 시작으로 서울 강서·동탄(6.5~6.16), 구리·부산(6.19~6.30)으로 지역을 확대하여 운영해왔다.

□ 7월 3일부터는 피해 규모, 지자체 수요 등을 고려해 대전시, 대구시 지역에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.

* (일정) 대전시·대구시(7.3~7.14, 각 2주간) / (설치 장소) 첨부한 세부일정표 참고

○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, 금융·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공하며,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(유선*)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.

* 찾아가는 상담소 방문서비스 : 02-6917-8105(전세피해지원센터)

담당 부서	주택정책관	책임자	팀 장	나민희 (044-201-4979)
<총괄>	임대차지원팀	담당자	사무관	김태훈 (044-201-4980)

참고

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일정표 (7.3~7.14)

□ 대전광역시 · 대구광역시(7.3~7.14)

지역명	운영내용	운영장소	운영일	운영시간
대전시	법률상담 심리상담 금융·주거상담	홍도동 행정복지센터	7.3~5	12:00~ 20:00
		비래동 행정복지센터	7.6~7	
		유천2동 행정복지센터	7.10~11	
		내동 행정복지센터	7.12~14	
	대전광역시 관내 피해자가 밀집한 4개동 순환			
대구시	법률상담 심리상담 금융·주거상담	서구종합 사회복지관	7.3~14	12:00~ 20:00
	대구광역시 관내 피해자 밀집지역(서구) 1개동			

◇ 심리상담은 월·수요일만 진행 / (협의내용 혹은 운영 특이사항 발생시 장소·요일 변경 가능)